

둘째로,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 개선되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한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도, 성경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믿음은 말씀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 가정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 묵상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강강술래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310장 다 같 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덕 담 가족 중 어른
주님의 기도 다 같 이

2023 추석 가정예배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삼하22:50)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추석을 맞이해 오늘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추석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삼하 22:50)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합 3: 17~18(구1305면) 다 같 이

-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 씀 믿음의 강강술래 인 도 자

옛날에는 추석이 되면 환한 보름달 아래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원을 만
 들어 돌며 강강술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추석에 가족-친지들이 함께 모여 가
 정 예배드리는 모습은 강강술래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족이 빙 둘러앉아 믿음
 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믿음의 강강술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믿음의 강강술래’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속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2:4)라고 말할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사람
 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 유다 백성들은
 악인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합1:3~4). 그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
 았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기서 만약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
 해서 기도를 중단했다면, 그는 응답도 받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도 되지 못했
 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고난에 담
 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고, 모로코와 리비아 지역의 자연재해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고, 바뀌었고,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믿는 가정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